

1번 문제(500자, 40점)

* 모범 답안지

제시문 <나>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세계 지도는 세계 전체를 알고 그린 지도가 아니며, 낮선 지역을 제멋대로 채워놓았다. 이는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검증되지도 않은 지역을 지도에 제멋대로 그림으로써 개방적 태도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15~16세기에 유럽인들이 그린 빈 공간이 많은 세계 지도에서는 경험적 증거를 가지지 않은 지역을 빈 공간으로 놔두어 무지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적 태도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제시문 <다>의 방송이나 신문은 개방적 태도를 따르지 않고,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여 보도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주장이라도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검증될 때까지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자 하나, 언론이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제시문 <라>의 모자 장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 크기를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태도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편견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에만 근거하여 머리 크기와 직업의 관계를 도출한 것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제시문 <나>, <다>, <라> 모두 A 버전을 따른 경우를 모범답안 예시로 작성하였음

*답안버전

	A 버전	B 버전	항 목
제시문 <나>	[개방적 태도] 근대 이전 세계 지도는 경험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여 제멋대로 지도를 그렸으므로 개방적 태도가 결여되었음	[객관적 태도] 근대 이전의 세계 지도는 낮선 지역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림으로써 객관적 태도가 결여되었음	(1)
제시문 <다>	[개방적 태도] 언론 보도는 증거(경험적 근거)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로 간주함으로써 개방적 태도가 결여되었음		(2)
제시문 <라>	[객관적 태도] 모자 장수는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하여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 태도가 결여되었음	[개방적 태도] 모자 장수는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하여 도출된 결론이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함으로써 개방적 태도가 결여되었음	(3)

* 채점 기준 (40점 만점)

배점	근거
34-40	제시문 <나>, <다>, <라> <u>세 가지 지문 모두</u> 에 대해 각각 위에서 서술된 답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7-33	제시문 <나>, <다>, <라> 세 가지 지문 중 <u>두 가지 지문</u> 에 대해 각각 위에서 서술된 답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0-26	제시문 <나>, <다>, <라> 세 가지 지문 중 <u>한 가지 지문</u> 에 대해 각각 위에서 서술된 답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19이하	세 가지 지문 모두에 대해 위에서 서술된 답안 중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은 경우. 혹은 250자 미만.

* 지문 출처

- 제시문 <가> : 박선웅 외, 『사회문화』, (주)금성출판사, p. 40
- 제시문 <나>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pp. 404-409
- 제시문 <다> : 문영진 외, 『국어 II』, 창비, pp. 243-244. (김두식, 무죄의 추정)
- 제시문 <라> :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주)지학사, pp. 280-281 (엘프리너 가드너, 모자 철학)

2번 문제(800자, 60점)

*모범 답안지(A)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호부조'라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공적인 가공물이며 수단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에서는 인간 네트워크를 허구와 실제로 구분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가름의 기준이 된다고 했다. 전쟁의 원인은 허구지만 고통은 실제하는 것처럼 허구에 대한 믿음도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는 허구적 실체로서 그 안에 우리를 도와라고 발명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는 로크의 주장처럼, 국가는 개인의 안녕을 위한 상호부조의 결과이며, 그 구성원인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난민을 받아들인 메르켈의 판단은 옳다. 이것은 국가라는 허구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성찰한 결과다. 로크와 <나>의 주장처럼,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우리를 도와라고 발명된 것이다. 이때 굳이 우리를 특정한 국민으로 한정 짓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가 허구라면 그로부터 파생된 개념인 국민 역시 허구인 까닭이다. 국가라는 허구에 얽매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가르고 차별하는 편협한 관점을 버리고 메르켈처럼 인류애의 관점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나 국경은 허구적 실체인 반면 난민들의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이 상존하는 한 그 이웃인 우리도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범 답안지(B)

스펜서는 국가를 개개의 세포로 환원할 수 없는 하나의 생물 유기체로 보았다. 유기체의 질서와 발전의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의 일부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는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에서는 인간 네트워크를 허구와 실제로 구분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가름의 기준이 된다고 했다. 전쟁의 원인은 허구지만 고통은 실제하는 것처럼 허구에 대한 믿음도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는 허구적 실체로서 그 안에 우리를 도와라고 발명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스펜서의 관점에서 <나>의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스펜서는 국가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실체이며, 독립된 질서와 발전 논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질서와 논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르켈의 처사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일시적인 여론의 감상주의에 영합한 불합리한 판단이다. 메르켈은 독일이라는 국가를 유기체로 파악하고, 독일의 안녕과 질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난민들은 독일국민의 일자리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구나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 여론의 비난에 몰리자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독일 사회에 부담을 준 것은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라는 유기체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난민의 유입은 사회불안 요소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60점)

배점	근거	
54-60	A	(1)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하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2)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고, 국가는 허구적 실체이며, 구성원인 우리를 돕기 위해 발명된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3) (1)과 (2)의 논리적 연관지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안녕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4) (3)의 관점에서 메르켈의 최종 판단이 옳았음을 주장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국가는 허구이므로 국민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안녕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B	(1) 스펜서가 주장한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2)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고, 국가는 허구적 실체이며, 구성원인 우리를 돕기 위해 발명된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3) (1)의 관점에서 (2)의 논리를 비판했다.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라 할 때, 개인은 그 질서와 논리를 따라야 하는데, (2)는 개인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 (3)의 관점에서 메르켈의 최종 판단이 틀렸음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질서와 논리를 따르는 것이 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메르켈의 판단을 비판했다.
47-53	(1)-(4) 중에 어느 하나의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40-46	(1)-(4) 중에 두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39이하	(1)-(4) 중에 세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20	400자 미만	

*지문 출처

- 제시문 <가> 박선웅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pp.65-66. 변형
- 제시문 <나>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김영사, 2017, pp.246-247.
- 제시문 <다>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김영사, 2017.